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불구하고, 연준 이달 금리 동결

[미국 금융]

- WSJ: 미 크레딧 카드 이용자들 연체율 감소
- YahooFinance: Oppenheimer, 올해말 S&P500 목표 월가 최고치로 크게 상향 조정

[무역 전쟁]

- WSJ: 트럼프와 EU 무역 합의...유럽산 관세 15%
- Bloomberg: 미국과 중국, 스톡홀름에서 관세 회담 시작
- Bloomberg: 일본, "대미 5천 5백 억 지원 중 1-2%만 투자"

[오일]

- Bloomberg: 원유 상승...트럼프의 러시아 발언 및 관세 협상에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시장, 13년 만에 최악의 봄철 판매 기록
- WSJ: 개인 주택 구매자 주춤...투자자들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삼성, 테슬라와 손잡고 테슬라 AI 칩 생산

[보고서]

- McKinsey&Company: 이제 직원 모두 기술 전문가다: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Fed Is Set for Contentious Debate as Investors Eye Fall Rate Cut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불구하고, 연준 이달 금리 동결

- 연준 관리들 간 점점 금리 논쟁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가을 금리를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내일 화요일부터 열리는 양일 간 정례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예상되고 있다.
- 파월 의장은 트럼프와 측근들로부터 금리 인하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 둔화되는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원하는 동료들 다수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 웰스파고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Sarah House는 연준 관리들이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통해 관세의 물가 여파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이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널리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금융]

WSJ: Credit-Card Users Are Cautious Now. Rate Cuts Could Open the Floodgates. 미 크레딧 카드 이용자들 연체율 감소

- 최근 관련 금융 통계에 따르면 많은 소비자들, 특히 저소득층 크레딧 카드 이용자들이 현재는 소비를 줄이고 있지만 계속 카드 사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와 관련 수년 전에 시작된 카드 연체와 대출 손실이 줄어들고 있다. 대형 대출 기관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카드 대출 순 손실처리율(the median rate of net charge-offs on card loans)이 3년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 대형은행들의 크레딧 카드 연체율도 작년에 비해 감소했고, 미 대형 자동차 융자 기관인 Ally Financial과 Capital One Financial의 2분기 실적에서 고객들이 자동차 융자 연체율 또한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WSJ 기사

YahooFinance: Oppenheimer lifts S&P 500 year-end target to Wall Street-high on trade optimism Oppenheimer, 올해말 S&P500 목표 월가 최고치로 상향 조정

- Oppenheimer는 올해말 S&P500 목표가를 7100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이는 월가 투자 목표 중에 가장 큰 수치로, 무역 갈등 완화와 강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 현재의 6,388.64에서 11.13%가 상승한 것으로 이 기관의 예전 목표 수치는 5950이었다.

YahooFinance 기사

[무역 전쟁]

WSJ: Trump and EU Reach Tariff Deal, Avoiding Trade War 트럼프와 EU 무역 합의... 유럽산 관세 15%

- 트럼프가 유럽연합과 관세에 합의해 유럽산 제품에 대해 15%의 관세 부과로 재조정된다.
- 유럽연합은 미 에너지 제품 7천 5백억 불을 구입키로 했으며 미국에 6천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양국 간의 합의는 가장 대규모 합의인데 현재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US, China Start Stockholm Talks Aimed at Extending Tariff Truce

미국과 중국, 스톡홀름에서 관세 회담 시작

- 미국과 중국은 스톡홀름에서 관세 휴전을 연장하고 무역 이슈와 경제적 안보 관련해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이틀 간의 관세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 중국의 부총리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이번 회담은 펜타닐 밀수와 관련된 미국의 관세 등을 논의하게 된다.
- USTR의 Jamieson Greer는 미국이 '강한 협상력'을 갖고 무역 제재와 팬타닐 이슈 등에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Japan Expects 1%-2% of \$550 Billion US Fund to Be Investment

일본, "대미 5천5백억 지원중 1-2%만 투자"

- 일본 측 무역 협상 책임자 Ryosei Akazawa는 미국에 제공하는 5천 5백만 불의 재원 중 1-2%만이 실제 투자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 나머지 금액은 융자로 사용되어지면 일본의 낮은 미 관세율로 인해 10조 엔을 절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일본이 융자 이자와 융자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일본이 돈을 버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il Rises as Trump's Russia Comments, Tariff Deal Boost Prices

유가 상승...트럼프의 러시아 발언 및 관세 협상에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동의 기한을 앞당기겠다고 밝힌 이후 유가가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금요일 1.1% 하락해 배럴당 70달러에 근접했다.
- 또한, 그는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 했다 밝혔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Ursula von der Leyen 과 진행한 협상의 일부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OPEC+ 위원회는 9월 생산량 정책 회의에 앞서 원유 시장을 평가하기 위해 이번 주에 소집될 예정인데,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들이 다시 할당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 중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using Market Posts Worst Spring Selling Season in 13 Years

미 주택 시장, 13년 만에 최악의 봄철 판매 기록

- 봄은 전통적으로 부동산에서 가장 성수기인데, 미국 주택 시장은 소비자들의 관세 여파 우려로 13년 만에 가장 저조한 봄 시즌을 기록했다.
- 아틀란타주 부동산 중개인 Glennda Baker은 매물이 팔리지 않는 상황이라며 “가격이 낮아져도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 경제 연구 책임자 Chen Zhao 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지만, 판매자들이 시장에서 매물을 철회하면서 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 Capital Economics의 이코노미스트 Thomas Ryan은 소비자 신뢰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름 반등세는 미미할 것이라 전했다. 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재융자를 받을 수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WSJ: With Individual Home Buyers on the Sidelines, Investors Swoop Into the Market

개인 주택 구매자 주춤...투자자들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 주택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동결되며 개인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 주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 부동산 분석 회사 Cotality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00채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소규모 투자자들이 주택 구매의 약 25%를, 고액 투자자들이 약 5%를 차지했다.
- 규제 기관도 투자자들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데, 일반 구매자가 경쟁하기 어렵게 만들고 가격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다는 이유이다.
- 건설사들은 쌓여가는 재고 해소를 위해 더 많은 할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7월 건설사의 38%가 계약 가격을 인하했는데, 이러한 추세는 새로운 투자자들을 시장에 끌어들이고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Samsung to Make Tesla AI Chips in Multiyear Texas Deal 삼성, 테슬라와 손잡고 테슬라 AI 칩 생산

-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텍사스주 테일러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 테슬라의 차세대 AI6칩을 생산한다.
- AI6 부품은 향후 몇 년 안에 테슬라 자동차 주행 하드웨어 제품의 기반을 형성하는데, 현재 삼성은 AI4 시스템을 생산 중이다.
- NH투자증권 류영호 애널리스트는 “이 계약은 연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술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 더 큰 가치를 지닌다”며 “삼성이 TSMC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한편, 삼성의 주가는 6.8% 상승하며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이제 직원 모두 기술 전문가다: 미래를 위한 디지털 기술**
디지털 업무 향상은 더 이상 기술 팀만의 일이 아니다. 직원들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사의 경쟁력을 키운다.

지난 2년간 AI는 급속도로 발전하며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제 사내 기술 인력과 비기술 인력 간의 격차를 줄여야한다. 직원들이 AI의 발전과 활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이러한 기술적 이점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노동 시장이 위축되고 업무 방식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업스킬링(업무 향상)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 테크 기업의 경영진 80명 이상이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80%는 직원 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업스킬링을 꼽았다. 그러나 향후 수년 내 기술 향상 학습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28%에 불과했다.

McKinsey&Company 기사

EU, 車관세 27.5→15% 인하 대가로 미국車에 '무관세 선물'
내달 1일 철강 제외 EU산에 15% 일괄 적용...철강, 쿼터도입 합의
EU "의약품·반도체 관세 15% 약속"...대미 투자엔 해석 온도차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유럽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전날 타결된 미국·EU 무역협정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